브리핑

일본의 미국 IT 사례 출장 보고

일본전기공업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미국 IT기업의 선진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2003년 1월호 전기에서 인용하여 게재한 것임.(편집자 주)

머리말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미국 IT 선진사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글로벌 대 경쟁시대를 맞이해 각 기업에서는 사업활동 전체를 새롭게 혁신 할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IT를 활용 함으로써, 이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정보화의 보급확대를 도모하고, 회원기업 각사의 IT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IT 기업 그리고 중견 제조회사를 방문함과 동시에 COMDEX FALL 2002를 시찰 함으로써 IT 활용의 동향을 조사했다.

출장지 : 미국 IT기업 4사, 중견제조회사 1사, COMDEX FALL 2002
출장월 : 2002년 11월

IT 기업

미국 IT기업 4개사를 방문해, 미국 자동차 업계, e-마켓시스템 업계, 물류업계의 IT 사정을 조사하였다. 또 일본의 정보화 시스템 개요 및 운용상황을 소개하고 의견의 상호 교환하였다.

일본 정보화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조직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기존의 상관습의 변혁과 표준화의 추진 등은 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용하는 기업과 제휴해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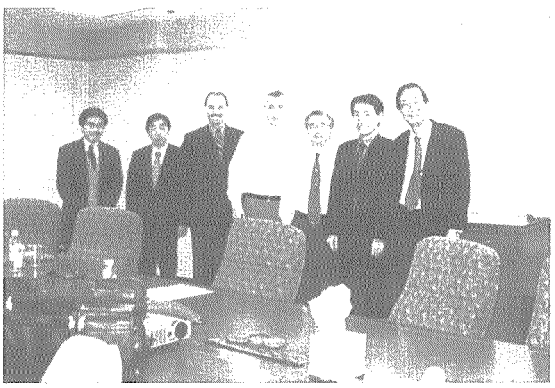
COVISINT 회사

자동차업계내의 상거래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공급 체인의 코스트를 삭감함과 동시에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에 미국의 빅3 르노/닛산, 오라클, 커머스원 등이 출자해

설립한 컨소시엄 회사이다.

옥션이나 카다로그 등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행하고 있다. 설계정보의 표준화 및 수요예측을 위한 정보 또 재고 정보의 보유 등 복잡한 기능의 실현을 위한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

ANXeBusiness 회사



미국 자동차 업계의 VPN(Virtual Private Network)인 ANX(Advanced Network eXchan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터넷이 개방적인 상거래 환경을 제공 하는데 비해 ANX는 정보 보완을 확보하는 폐쇄적인 상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관련 애플리케이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ANX~JNX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시작한다는 소개를 하였다.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CommerceOne 회사

e마켓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개척자적인 사업체이다. 종래 제로베이스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패키지의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의 장기는 시스템 제휴와 통합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되는 XML과 Web서비스의 표준화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보화 기능을 확장할 때에 채용함을 목표로 해 사업내용의 프리젠테이션 제안이 있었다.

Manalytics International 회사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SCM/로지스틱의 컨설팅 회사이다.

고객으로는 FedEx, 월마트, 일본우선, 미쯔이 기배, 야마하, 미쯔미시상사, 이토오츄상사 등 일본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타이밍에 맞추어 확실하게 배송하는 적기 택배의 개념 그리고 기회를 상실할때의 평가에 기초하는 물류비 산출의 방안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에 근거하는 물류사정에 대해 소개하는 등 흥미롭고 심층적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다.

중견제조회사 방문

중견제조회사인 The Bing Group 회사는 GM과 포오드, 미국 도요타 등을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용 시트 및 금속 패널 부품 메이커이다.

시트 받침공장, 금속부품 프레스 공장, 금속부품 용접 조립공장 등 세계의 공장을 견학하면서 IT 의 적용 상황을 시찰했다.

가장 중요한 기관정보 시스템은 시트분야에서 제휴하고 있는 대형 부품메이커인 Lear사 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장래 오라클사의 통합 패키지인 QAD로 통합을 꾀하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SCM은 최종적으로 현금 경영 등 경영지표의 가시화로 나타야한다는 고려하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COVISINT회사가 운영하는 옥션에 참가하는 기업에 하나이다.

오너인 Mr. Bing은 본래 프로 프로농구선수였다. 은퇴후에 소속팀의 홈타운인 디트로이트에 공헌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흑인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장내에 정리 정돈과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취업태도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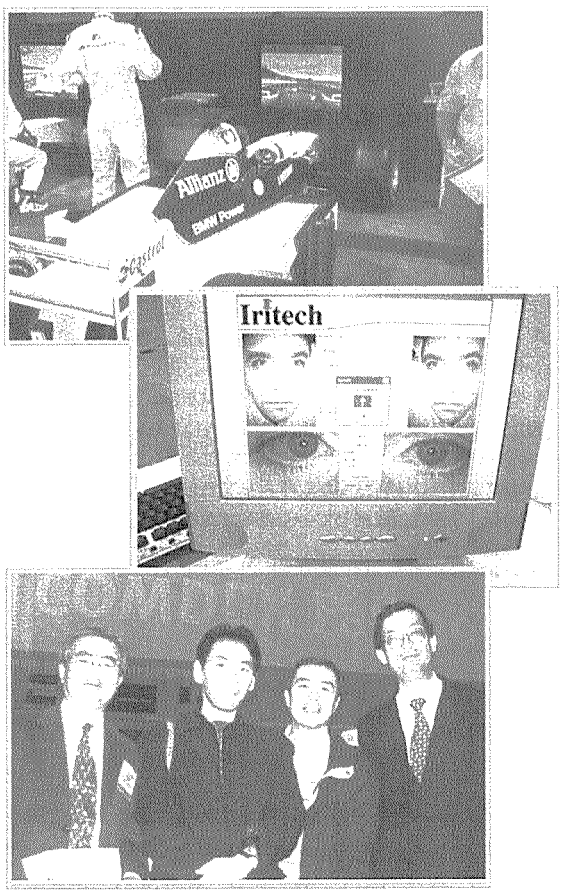
가동이 중지되고 있는 생산라인은 매우 적었고, 가로건이나 알기쉬운 작업지침을 개시하고 있었다. 물류라벨의 분류, 특히 사내에서는 황색라벨로 통일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 생산 스케쥴을 보기좋게 기재하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수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시에서는 GM본사가 중심부로 되돌아가는 등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본 위원회의 방문이 시청에도 연락되어 방문을 환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관계자 3명이 우리들의 공장견학에 동석하여 주었다.

COMDEX FALL 2002 방문



세계 최대의 PC 관련 전시회로서 마이크로소프트회사의 빌게이츠 회장등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기조 강연을 하는 장소로 매우 유명하다. 말하자면, 미국 IT 업계의 잔치자리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영향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사나 구경하는 사람이 그 전에와 비교해 격감한 것 같았지만, 개막식에 인파는 놀랄정도로 붐볐다. 전시내용으로는 무선랜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환경, 시큐리티 확보를 위한 지문망막인증장치, 테블렛 PC 휴대전화 등 최신 전자 IT 기기들이 주목을 받았다. 유명한 출전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HP 등 미국계가 있었고, 일본계로를 미국 도시바, 리코, 올림푸스 등을 들수 있다. 매년 화재를 뿌려왔던 일본 소니가 이번에는 출전을 중지해 또다시 화제를 뿌린 셈이 되었다. 또한 중국, 대만, 한국으로부터의 출전도 눈에 띄었다.

맺음말

2001년 10월에 계획되었던 이 조사는 당시 연쇄적인 테러의 영향으로 연기가 되었고, 이번에 그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IT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게 되었다. 정보화추진 센터에서는 2001년 5월에 운영이 시작된 본 조직의 보급확대를 기함과 동시에 회원기업의 IT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출장으로 미국 선진기업에 있어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선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방문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적확하게 평가함과 아울러 계속 해외의 동향을 주시해 IT 활용을 통한 업무의 개혁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